
2020년 제46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11. 6. ~ 11. 12.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11. 7.	시청률	0.089

【총 평】

‘단박톡’에서는 최대의 핫이슈인 미국 대선이후의 미·북관계 전망을 살펴보는 시의성 있는 기획이 돋보였다. 미 대선이 바이든의 승리로 굳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미 외교의 전면에 나서게 될 북한의 여성 4인방의 면면을 소개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본 것은 시의적으로 적절했고 들을 만한 이야기도 많았다.

‘NOW 北’은 최근 천덕꾸러기가 된 북한 돈의 실상과 모란봉 악단의 변화를 시도하는 북한의 배경을 다뤘다. 최근 북한당국이 외화사용을 금지하고 원화 사용을 강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석은 현재 북한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북한당국의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

‘북한의 여성 정치인 4인방’과 ‘외화사용금지조치’는 시의적으로 관심이 가는 주제였는데, 특히 4인방 이야기는 풀어나가는 방식이 독특했고 의미 있는 관점과 정보도 많았다.

【구성 및 내용】

단박톡은 외교무대에서 활동하게 될 여성 4인방을 ‘환불원정대’를 패러디해서 ‘제재원정대’라고 이름을 붙인 것에선 재치가 느껴졌고 오밀조밀한 내용 구성 덕에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었다. 북한 외교의 전면에 여성 4인방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풀어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여성 4인방’의 프로필을 김정은 위원장과의 인연을 중심으로 브리핑하듯 간결하게 전한 점도 좋았다. 특히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국무위원으로 올라간 속사정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현송월의 개인적 관계 그리고 문화 예술적 측면에서의 외교활동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의미 있었다. 퍼스트레이디로서 이설주의 역할을 레이건대통령의 영부인 낸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의 영부인 라이사 고르바초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분석한 점도 흥미 있는 대목이었다.

나우북은 북한 당국이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외화사용금지조치’를 취한 부분을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 수업을 할 때 추진했던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갔던 경험은 ‘외화사용금지조치’의 향방을 점쳐볼 수 있었다. 북한 내에서 달러, 위안화 등 의존율이 90% 이상으로 이에 북한은 외화 사용 단속에 나섰다. 이는 북한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짐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다.

현송월 중매를 김정은 위원장이 했으며, 현송월 집에 김정은 위원장의 직통전화기 설치될 정도로 신임이 두텁다는 비화 등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북한여성실세의 내밀한 부분 까지 다뤄 시청자의 관심을 유발했다.

그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곁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수행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으나, 최근에는 밀착 수행하는 현송월부부장의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현송월부부장의 남편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현송월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	길 따라 인문학		
방송일자	2020. 11. 7.	시청률	0.000

【총 평】

‘서동과 선화, 백제의 시간을 걷다’는 서동요로 널리 알려진 백제의 무왕 서동과 신라 진평왕 셋째 딸 선화공주와의 로맨스를 배경으로 백제의 시간을 걸으며 찬란했던 백제시대 문화를 조명한 기획이 돋보였다.

백제와 신라의 왕자와 공주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이들의 사랑과 발자취를 탐방하며 백제 문화의 진면목을 탐구하는 구성이 흡인력을 높였다. 서동과 선화의 사랑의 무대, 백제인의 숨결이 있는 곳, 찬란한 문화가 산재해 있는 유적을 탐방하고 삼국유사를 인용하며 역사적 사실을 고증한 전문가 인터뷰 구성이 설득력을 제고했다. 대금 연주를 비롯해 백제 오악사 연주, 모내기 농요 재연, 백제 토기 만들기 재연 등도 당시 상황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구성 및 내용】

서동과 선화의 사랑이야기를 바탕으로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부여에서의 백제의 유산을 둘러보았다.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부여는 백제의 영광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부여가 도읍지로 있던 123년간의 기간은 백제문화의 최전성기로 삼국문화 가운데 최고 예술을 꽃피웠던 찬란하고 눈부셨던 시간이었다. ‘서동요 설화’를 중심에 놓고 백제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이야기부터 선화공주를 위해 조성한 궁남지 포룡정, 부여의 관북리 유적, 부소산,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그리고 백제인의 공예기술을 전해주었으며 마지막으로 부여출신의 민족시인인 신동엽 시인까지 다루었다.

서동과 선화의 당시 복식, 현대 복장의 변화를 통해 백제의 그날과 현재의 역사적 의미의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대비하는 구성이 돋보였다. 특히 서동과 선화 역할을 한 남녀 주인공이 당시 복식차림에 이어 현대 복장을 한 모습으로 등장해 로맨스와 창을 보여줘 한 편의 뮤지컬로 스토리를 이어가는 극적구성이 몰입도를 끌어 올렸다. 백제와 신라의 왕자와 공주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이들의 사랑과 발자취를 탐방하며 백제 문화의 진면목을 탐구하는 구성이 흡인력을 높였다. 또, 삼국유사를 인용하며 역사적 사실을 고증한 이동주 백제세계유산센터장, 신승복 도예전문가, 신동엽문학관장 등의 인터뷰가 설득력을 제고했다. 이 밖에 부여관북리 유적지에서 발굴된 수도시설, 목곽창고의 모습이 당시 문화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궁남지 포룡정은 백제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가 깃든 곳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정원으로 알려져 있다. 부여 관북리 유적은 길이가 35M에 이르는 건물터로서 1400여전 백제의 수도시설, 길, 창고 등을 통해 당시의 생활수준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백제인의 공예기술은 뛰어났는데 백제 토기는 서민적이면서 단순하다. 그리고 더불어 해학적이며 쓰임새가 많음과 동시에 간결하고 곡선이 많은 특징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11. 7.	시청률	0.070

【총 평】

‘강화, 숨소리’는 강화도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도시와 사람이 만든 강화 숨소리를 켜켜이 담아냈고, 시청자들에게 강화도의 다양한 풍경소리와 새로운 강화를 보고, 듣고, 느끼며, 읽게 해주었다. 강화도의 추젓 경매 시장과 갯벌마을의 젓새우 잡이와 망둥어 잡이를 통해 바다의 숨소리와 진한 삶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추젓-순무-갯벌로 이어지는 강화도의 역사와 지역특성을 통해 강화도의 과거·현재·미래를 짚어냄으로써 강화도만의 독특한 풍경소리를 매력적으로 담아냈다. 서해의 아름다운 갯벌 풍경을 그대로 담아내 인상적이었고 내레이션과 화면, 사운드 등이 잘 어우러져서 한 편의 수채화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외판장이나 새우잡이 현장의 시끌벅적한 현장을 취재하면서도 그리 소란스럽지 않게 편집해 프로그램 특유의 감성을 방해하지 않아 좋았다.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강화군 외포리의 강화 추젓 경매 모습, 전국의 젓갈 상인들이 강화 젓갈을 인정하는 이유, 새우잡이 배와 자금심 높은 선장, 강화 젓갈이 명품인 이유를 바다 선상에서 잘 보여주었다.

좋은 새우젓을 구하기 위해 새벽길을 달려온 사람들로 시끌시끌한 경매장. 전국 새우젓의 90%는 강화산이다. 시원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새우젓은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또, 강화군 불은면의 순무 이야기, 순무를 통해 보는 강화 역사, 순무를 키우는 농심의 마음, 강화 화도면의 갯벌 부자(父子) 이야기, 어업인의 사명감, 밀물과 썰물이 드러낸 갯벌 생명 이야기를 전했다. 이 밖에 우리가 몰랐던 강화 망둥이의 매력과 쓸모, 강화 어민들의 삶이 녹아든 정서 등을 아름다운 색채로 담아냈다.

강화도 앞바다를 소개하고 외판장으로 이동해서 새우젓 경매현장을 담아냈는데, 김장철을 앞두고 있어 유심히 보게 되는 풍경이었고 강화도 추젓이 왜 유명한지 화면만 봐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화면을 잘 잡아냈다. 또, 외판장에 나가기 전 새우잡이 배를 타는 장면에서 직접 새우를 잡아 올리고 곤쟁이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몇 번을 씻는 모습을 통해 외판장으로 나가는 새우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유통되는 것인지 새삼 알 수 있었다. 이 대목에서 ‘귀한 것일수록 쉽게 얻을 수 없다, ‘이 곳 새우들은 강화 어부들을 먹여 살리는 보물’이라고 표현해 잘 어울렸다.

갯벌의 아름다운 풍경과 갯벌 작업을 하는 부자간의 돈독한 정도 잘 표현이 되어 훈훈하게 느껴졌다. 굴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굴이 물을 뱉어내는 신기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밀물 때가 다가오자 ‘갯벌의 생명들이 숨을 들이쉬는 시간’이라는 표현은 독창적이고 감동적이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0. 11. 7.	시청률	0.001

【총 평】

‘골령골의 눈물,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은 1km를 넘는 광범위한 무덤이 학살지역이었음이 믿기지 않을 ‘대전형무소 재소자’들의 끔찍한 희생 사건과 진실을 다뤘다. 해방이후 이념논쟁으로 인해 정부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대전형무소 비극의 전말, 민간인 학살의 분기점이 됐던 대전형무소, 대전형무소가 근현대사에 미친 상징성, 유족들의 증언, 유해 발굴 작업, 대전형무소광역시에서 벌어진 사건 등을 추적해 보았다.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 벌어진 ‘대전형무소’ 학살사건의 전말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맺힌 한이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잘못된 과거를 잊거나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도가 프로그램에 오롯이 담아졌고, 사례자들의 증언은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경계하자는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구성 및 내용】

단재 신채호 선생의 메시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상기시킬 정도로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잘 보여준 기획 구성이었다. 대전형무소 재소자들이 주로 희생된 골령골 집단 학살사건은 다른 지역의 집단학살과 달리 정치사상범들이 주로 희생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골령골 학살 현장은 희생자가 1,800명에서 7,000명까지로 추정하는데 발굴된 유해는 80여 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전국에 흩어진 유가족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가슴이 먹먹해 졌다. 특히,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의 핵심과 근현대사의 중요성을 점층법으로 이끌어내어 사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골령골의 눈물,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은 일제강점기 때 몽양 여운형 선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 등 수 많은 독립 애국지사들이 옥고를 치른 ‘대전형무소’에서 한국전쟁 직전에 벌어진 정치사상범 학살 비극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해방 이후에도 제주 4.3사건과 여순 사건으로 연루된 정치사상범을 대전형무소에 이송한 정부의 편협성,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도 3-4천 명의 수감자를 두고 골령골 학살터에서 이념 갈등을 종식시키려 했던 공무원 정치꾼들의 만행 등, 국가 간 알력에 휩쓸려 힘없는 국력이 빚어낸 비극을 보여주었다. 또, 대전 산내 골령골(현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에서 법적 근거 없이 무고하게 집단 살해를 당한 희생자들의 진실과 9.28 수복 후 고문 등으로 희생당한 진실 규명 과정을 그려내어 ‘대전형무소’의 억울함을 리얼하게 보여주었다.

당시 희생자 유족들이 겪어야 했던 야간 감시, 억울한 지난날을 그린 시, 알 수 없는 학살, 따가운 주변 시선,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서 명예회복을 위한 유족들의 현재 희망 사항 등이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과거와 과거를 통해 미래의 역사를 생명력 있게 이끌어 가보자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11. 8.	시청률	0.001

【총 평】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오염수 방류는 곧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인체에 방사능 피폭 유해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부산 바다에 악영향을 끼치고 해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져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후폭풍도 심각한 상황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왜 위험한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을 맞아 긴급진단 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0월 27일 실시하려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방침을 11월 이후로 보류함에 따른 시의성 있는 기획이 돋보였다.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집중진단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등 의제설정을 통한 여론 형성 계기를 마련하고 대일본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염수 방류 방침을 정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전문가 의견과 각종 보고서 자료 등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한 구성은 타당한 논리로 설득력을 높였다. 특히 화상연결을 통해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로부터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멘트를 이끌어낸 부분이 주목을 끌었다.

【구성 및 내용】

일본 정부가 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려고 하는지 그 속사정과 그 대로 실행될 경우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우려와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일일 발생량과 더불어 해양방류 방식 등 처리 방안, 오염수의 방사는 정화, 오염수 방류 이후의 대응 등을 하나하나 짚어보았다. 특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핀셋으로 집듯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 바닷물 오염에 대해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과 어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전하면서 취재를 시작했는데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도입이었다. 2017년 후쿠시마 현지 취재의 경험을 소환해서 당시의 위기감을 전하려고 한 시도도 좋았다.

특히, 피해 영향 시뮬레이션과 유전자까지 손상시키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린피스 전문가, 이경자 AWC한국위원회 운영위원, 안재현 환경운동연합 국장,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인터뷰 내용이 심각성을 지적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 관계자가 후쿠시마 원전의 구조를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고, 삼중수소, 다핵종제거 등 어려운 용어가 많았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국내 환경단체의 의견 뿐 아니라 일본의 시민단체 관계자를 화상으로 인터뷰해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는 메시지는 우리 뿐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점도 의미 있었다.

프로그램	밥보다 법		
방송일자	2020. 11. 8.	시청률	0.101

【총 평】

코로나19 팬데믹이 낳은 산업재해 중, 최근 가장 잦은 사건사고로 꼽히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문제와 산업재해 적용 문제를 다룬 ‘산업재해 보장의 모든 것’을 방송했다.

아름다운 청년 고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앞두고 기획한 ‘산업재해 보장의 모든 것’은 반 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산재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신성한 노동의 문제, 산업 발달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 보장의 문제를 생각해 본 유익한 시간이었다. 최근 국내 택배기사는 5만여 택배기사 중 1만천여명이 사측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낸다고 하는데, 사측의 숨은 의도는 무엇이고 택배기사들이 협박과 강요에 의해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갑을관계의 고용 문제와 불이익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근본적인 노동 문제를 찾아내어 함께 고민해 보았다.

【구성 및 내용】

반세기 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법령집과 함께 자신의 몸을 태웠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한가? 여전히 한 해 동안 산재로 인한 사망률은 2천명이 훨씬 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현실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고, 노동계에 간접적인 일침을 가한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불합리한 근로 문제를 언급하면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둔 이유와 산재 신청 방법, 다양한 사례 및 산재 적용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산업재해 대상 사고나 질병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택배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당연히 산재 가입 대상이지만 대리점이나 사용자들에 의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산재는 본인의 잘못이나 과실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고 스스로 결정하는데 산재는 무과실원칙으로 업무상에 사고와 질병을 갖게 됐다면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또,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고 나서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산재처리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전체적인 구성은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시작으로 산재 보험 적용 범위를 설명했고 택배 노조 대표와 전화 연결을 해서 택배 기사들이 산재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서도 잘 들어봤다. 또, 전화 상담을 통해 업무 시간 외 사고, 재택근무 시 사고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고 산재 보험의 범위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다. 점심시간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를 통해 신재의 인정 범위와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재택근무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산재 적용 여부도 알아봤다. 무엇이든 물어볼 법에서는 가계약금 반환 문제와 관련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사례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알아 봤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11. 8.	시청률	0.026

【총 평】

“적게 왔지만 크게 행복합니다.”는 충북 옥천군의 귀농 4년차 30대 신혼부부의 꿈과 낭만, 행복이 그려져 귀촌의 아름다움과 젊은 세대의 또 다른 세계를 알 수 있는 기획이 눈길을 끌었다. 경제난과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포기하는 젊은 세대의 세태를 깨닫기 불식시키는 소재와 내용이 신선했다.

카페의 운영과 결혼준비, 이웃에 봉사하고 싼 값에 동네 주민들에게 커피를 제공, 인근 학교의 마을교사로서 벽화수업 진행, 돌봄교실 간식배달 등 알콩달콩 살아가는 신혼의 일상을 한 편의 동화 속 홈드라마 형식으로 그려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젊은 부부의 사랑, 인근에 사는 부모님과 화목한 관계가 홈드라마를 떠올리게 했다.

【구성 및 내용】

‘적게 왔지만 크게 행복합니다.’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마을에서 자그마한 카페를 운영하는 귀촌 4년차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카페의 운영과 결혼준비로 바쁜 주인공 부부의 소소한 일상을 담담하게 전해주었다. 특히, 남편의 “많이 팔고 조금 남기자, 돈보다 나만의 공간 필요”, 아내의 “지금처럼 소소하게 사는 게 행복”이라는 말은 젊은 부부의 ‘소확행’ 생활을 통해 각박한 도시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한 부분이 돋보였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으로 귀촌한 부부는 새살림을 차리고 시골에 카페를 열었다. 시내에는 남편이 학창시절을 보낸 마을이 있고, 그곳에 부부의 카페가 있다. 그곳은 느리지만 직접 커피를 내린다. 남편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고 난 뒤 아내가 가게를 방문하고 만남을 이어오다가 현재는 같이 산지 4개월이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이 연기되면서 혼인신고를 먼저하며 부부로 연을 맺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내려와 어린 학생들과 시간을 같이 하고 또 지역 주민과 호흡하면서 보람을 찾아가는 부부의 모습은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시골부부카페’라는 이름도 재미있었고 그곳에서 시종일관 마치 소풍 나온 사람들처럼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에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아이들과의 벽화수업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고, 카페를 놀이터로 내주기도 하는 것을 보면 부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느낄 수 있었다.

차로 멀지 않은 곳에 부모님의 열매마 농장이 있어 가끔 일손을 돕거나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데, 함께 식사를 하며 가족 간에 이야기꽃이 핀다.

산림욕장에서의 데이트, 단란한 가족 식사, 결혼반지 구입, 청첩장 준비, 커피 배달, 학교 건물에 벽화 그리기 등 젊은 부부의 삶의 공간을 세세하게 표현한 영상 구성이 흡인력을 제고했다. “11월1일 오전11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는 엔딩 자막도 인상적이었는데, 시청자들도 신혼부부의 결혼을 축하하고 힘찬 출발을 기원했을 것이다.

프로그램	슬기로운 취업생활 일자리센터		
방송일자	2020. 11. 8.	시청률	0.000

【총 평】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공간 콘텐츠 기획자’를 소개했다. 공간기획·설계·시공·디자인·개선사항 기획까지 이야기(소프트웨어)와 공간(하드웨어)을 동시에 기획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공간 콘텐츠 기획자’이다.

‘공간 콘텐츠 기획자’는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더 어울리는 직업으로 공간 속의 다양한 문화적인 소재를 공간에 이야기화해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내는 신종 직업군이다. 공원이자 실내형 테마파크 등 공간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직업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를 알 수 있었고, 직업의 세계와 취업 노하우를 자세히 다뤄 흥미로웠다.

【구성 및 내용】

공간 콘텐츠 기획자가 직접 전해주는 직업의 세계, 회사 대표가 전하는 인재상은 예비 취업자들과 시청자들에게 핵심을 찌르는 정보를 주었고, 직업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 시청자들에게도 다양한 직업에 대한 세계관을 넓혀주어 유익함을 주었다. 공간콘텐츠 기획자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이나 전시회장의 공간에 대해 자신만의 스토리와 콘셉트로 시뮬레이션 하는 시도와 한 장소에서 사람에 대한 행동분석이나 흥미분석을 하는 자세를 가져보는 것이 도움이 됨을 알려주었다.

전체적인 구성은 공간 콘텐츠 기획자가 하는 일과 취업 선배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짧게 소개하고 대표의 창업 배경을 들어보았다. 달려라 신입사원에서는 셀카 형태로 취업 선배의 하루 일과를 소개하고 회사 내부와 동료들을 소개했다. 이 밖에 취업 선배가 직접 전수하는 공간 콘텐츠 기획자로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정보와 모의 면접을 통해 공간 콘텐츠 기획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인드와 포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어봤다.

취업 선배가 전한 취업 합격 비법 세 가지는 첫째 다양한 공간 경험 쌓기, 둘째 디자인 도구 마스터하기, 셋째 사람을 관찰하기 등이었다. 고객의 흥미를 찾아내고 기획 훈련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토크 덕분에 직업군에 대한 흥미를 유발했다. ‘공간 콘텐츠 기획자’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직업이든 ‘사람’이 중심임을 잘 드러낸 부분이었다.

회사 대표님의 모의 면접 질문으로는 놀이공원과 테마파크의 차이를 설명하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알아보는 질문으로 묘비명에 무엇이라고 쓰고 싶은가, 자신의 장단점과 강점과 약점의 차이 등이었다.

프로그램 전반을 통틀어 직종에 대한 설명은 물론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설명이 잘 된 것 같고, 특히 중간 중간 댓글을 소개하면서 실제 취업생들의 질문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